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 3월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100.8로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 3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감소, 재고 감소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1.9%, 대형마트 3.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0% 증가
 -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는 입학 및 취업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이라 예측됨
- 3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으로 4개월 연속 포함
 - 서비스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5.0% 각각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1%로 전년동월대비 포함
 - 3월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포함인 61.1%임
- 3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4.9% 감소
 - 3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0.5%) 증가한 4,846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5천명(0.9%), 여자는 1천명(0.1%) 각각 증가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9%) 3.0%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4%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5.2%, 전국대비 1.1%p 높음
 - 3월 서울의 실업률은 남자는 5.8%, 여자는 4.5%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7.9%로 전국의 고용률(57.8%)보다 0.1%p 높은 수준

부동산

- 2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2,92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0%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관공서 및 교량 지하철 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85.1% 증가, 민간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재개발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12.4% 증가
- 3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강북지역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 강남지역 상승세 축소
 - 서울의 강북지역(0.1%)에서는 마포구(0.6%), 중구(0.4%), 강북구(0.3%) 순으로 상승, 강남지역(0.1%)에서는 동작구(0.3%), 금천구(0.2%), 송파구(0.2%)가 상승 주도
- 3월 주택전세가격 매매가격대비 높은 상승률 지속
 - 강북지역(0.9%)에서는 성동구(2.6%), 성북구(1.3%), 광진구(1.1%) 중심으로 상승, 강남지역(0.7%)에서는 강서구(1.8%), 강동구(1.2%), 동작구(1.1%)가 상승을 주도

금융

- 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8조 7,37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40% 증가
- 2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33개로 전월대비 9.9% 감소
- 2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8개로 전월대비 25.5% 감소
- 3월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서울의 수출은 36.4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4.0%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의 순
 - 3월 서울의 수입은 87.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7.7% 증가.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순

| 생 · 산 |

3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 3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 서울시 생산지수는 100.8(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기장비, 기계장비, 기타제품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및 경공업 부문 각각 증가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6.7% 증가하며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감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하여 1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 전국의 3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

- 전국의 광공업 생산은 19.1% 증가함, 기타운송장비(-15.8%), 석유정제(-10.6%) 등은 부진하였으나 전년동월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및 부품(50.9%), 자동차(45.8%) 등의 호조로 9개월 연속 증가세 나타냄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3.8%), 예술·스포츠·여가(-5.5%)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도매·소매(7.7%), 운수(16.2%), 금융보험(5.0%) 등의 호조로 5개월 연속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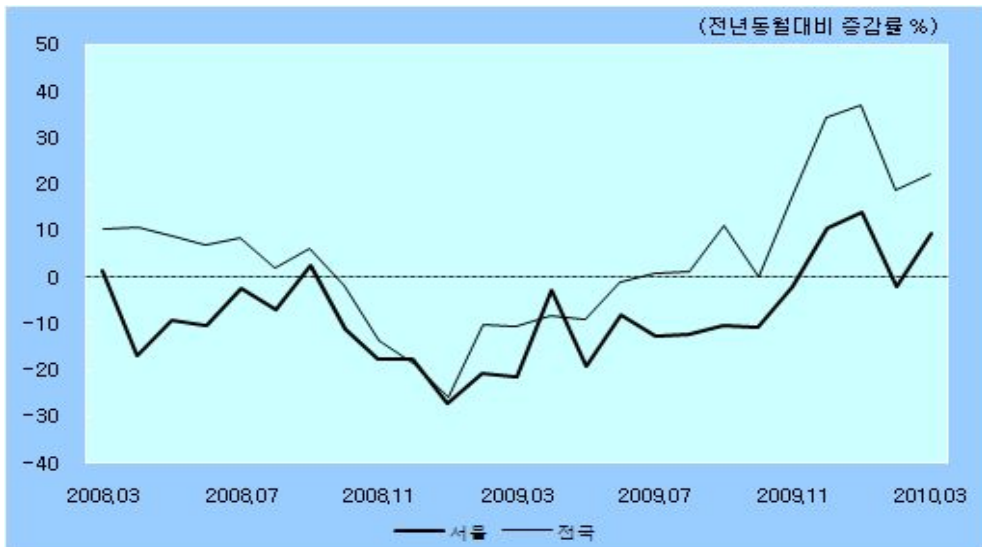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21.3	-2.1	10.7	14.0	-2.2	9.4
	중공업	-40.8	-0.2	3.9	14.4	5.6	16.7
	경공업	-8.8	-3.1	14.5	13.9	-5.4	6.3
	전국	-10.2	0.2	18.1	34.2	36.9	19.1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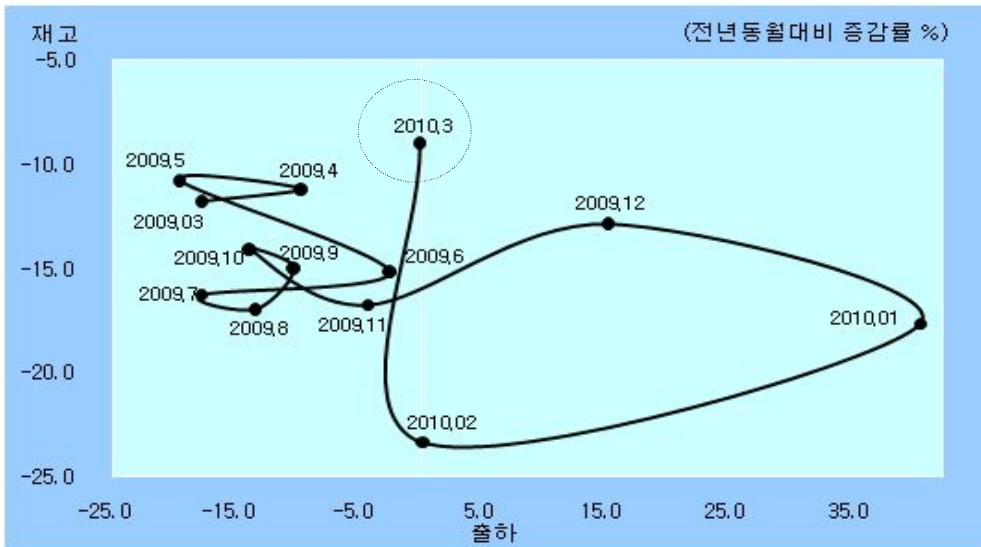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3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지역의 3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41.9로 전년동월대비 9.0% 감소
 -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식료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섬유 제품 등에서 감소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00.7(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은 감소하였으나,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감소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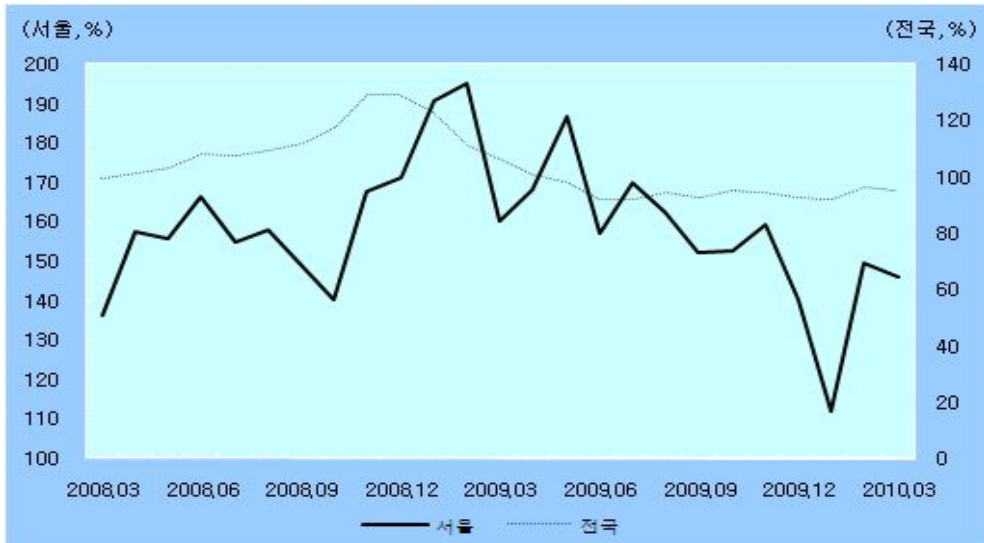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1.4% 감소, 부문별로 보면 중공업 감소, 경공업 증가
 - 3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5.0%로 전월대비 1.4%p 감소하였고, 전국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28.5%로 전월대비 14.8%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3.5%p 감소한 146.0%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30.9%p 증가한 184.6%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3월	11월	12월	1월p	2월p	3월p		
재고율	서울	106.4	94.3	92.6	92.2	96.4	95.0	-1.4	
	중공업	160.2	159.4	140.5	112.1	149.5	146.0	-3.5	
	경공업	126.4	118.7	110.9	168.8	153.7	184.6	30.9	
	전국	169.5	173.8	149.5	93.6	143.3	128.5	-14.8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잡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3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8.0% 증가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및 대형마트 11.9%, 3.1% 각각 증가

-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5,216억으로 전년동월대비 8.0%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1.9% 증가, 대형마트 3.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역시 2개월 연속 상승. 이는 입학 및 취업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가 증가한 것이라 예측됨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6.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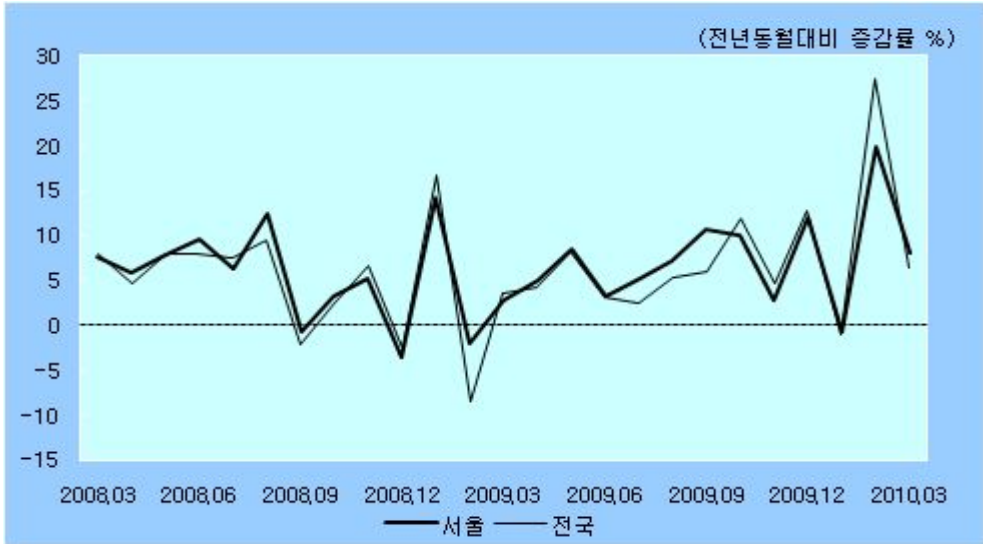
- 전국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5,876억으로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 대형마트는 27.9% 증가함
- 유형별로는 승용차,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내구재가 27.1%,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1.0%,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3.2% 각각 증가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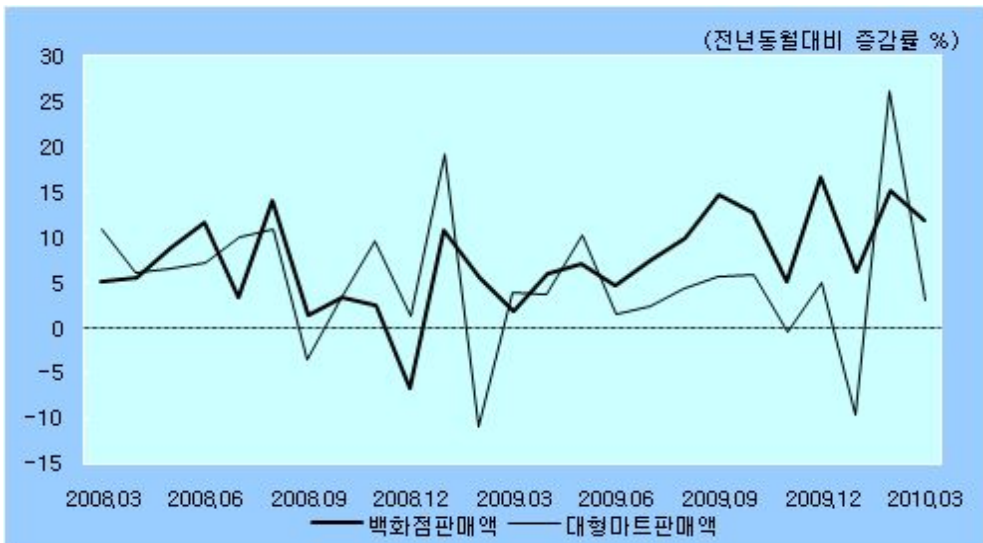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3월	11월	12월	1월p	2월p	3월p	
판매액	서울	1408.5 (2.8)	1585.3 (2.9)	1705.0 (11.9)	1571.8 (-0.7)	1529.7 (19.8)	1521.6 (8.0)
	백화점	7919 (1.8)	978.0 (5.1)	1048.3 (16.7)	943.0 (6.3)	852.1 (15.2)	886.2 (11.9)
	대형마트 (할인점)	616.5 (4.0)	607.3 (-0.4)	656.6 (4.9)	628.8 (-9.7)	677.6 (26.1)	635.4 (3.1)
전국	4311.8 (3.5)	4654.9 (4.6)	5019.9 (12.8)	4738.6 (-1.1)	4805.4 (27.4)	4587.6 (6.4)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2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3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 3월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4개월째 포함

- 3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전도시:115.0, 2005년=100)로 전월대비 0.4%상승하여 4개월 연속 포함,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

■ 서울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5%,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5.0%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9%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0%, 전년동월대비 7.8% (전도시:8.4%)

■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5개월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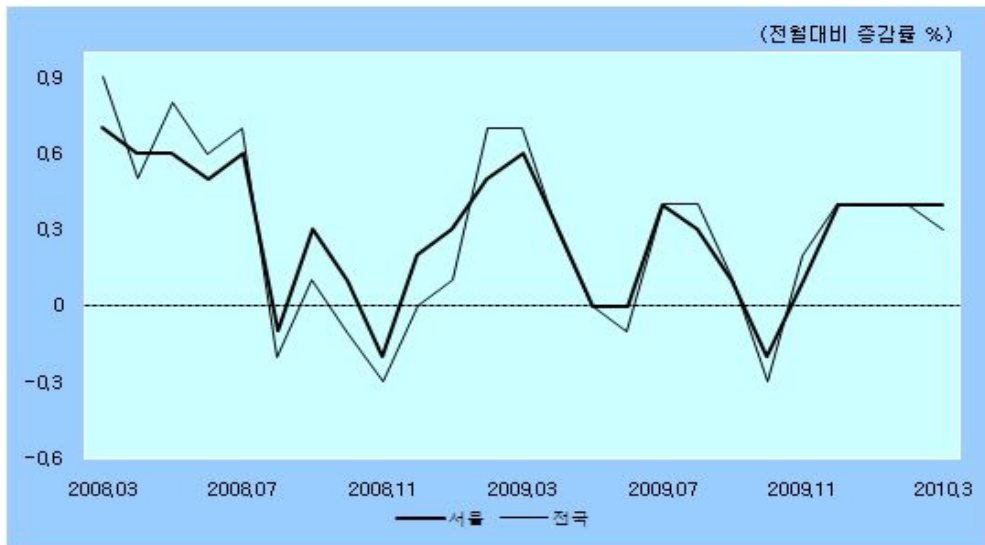
- 3월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로 전월대비 0.3%로 상승하여 11월 이후 5개월째 상승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9%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6%, 전년동월대비 8.7%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6개 시도 모두 0.2~0.7%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비	서울	0.6 (3.9)	-0.2 (2.2)	0.1 (2.5)	0.4 (2.6)	0.4 (2.7)	0.4 (2.6)	0.4 (2.3)	
	상품 성질별	상품	1.1 (6.5)	-0.5 (2.5)	0.2 (3.8)	0.6 (4.2)	0.6 (4.2)	0.3 (3.3)	0.6 (2.8)
		서비스	0.4 (2.6)	0.0 (2.0)	0.1 (1.7)	0.2 (1.8)	0.3 (2.0)	0.4 (2.2)	0.3 (2.1)
	생활물가	0.9 (3.2)	-0.3 (2.0)	0.0 (2.4)	0.4 (3.2)	0.6 (3.4)	0.4 (3.3)	0.5 (2.9)	
	신선식품	3.2 (10.2)	-2.8 (5.0)	-3.3 (3.6)	5.0 (5.2)	6.5 (4.5)	3.1 (6.0)	5.0 (7.8)	
	전국	0.7 (3.9)	-0.3 (2.0)	0.2 (2.4)	0.4 (2.8)	0.4 (3.1)	0.4 (2.7)	0.3 (2.3)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배추, 무, 멸치, 고등어 등 전월대비 가격상승, 파, 마늘, 쇠고기 가격하락

- 소비자들의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청과류의 경우 평균 11.4%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품목은 평균 3.9% 가격상승
- 청과류 중 배추 가격은 전월대비 27.05%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그 외 무(23.48%), 양파(24.86%) 상승, 파(-16.69%), 마늘(-1.39%) 가격은 하락
- 축산물 중 쇠고기는 0.19% 하락, 돼지고기는 1.59% 상승. 수산물인 멸치와 고등어는 8.91%, 5.57% 각각 상승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1월	2월	3월	증감율
축산	쇠고기	17,929	17,526	17,493	-0.19
	돼지고기	3,593	3,658	3,717	1.59
수산	멸치	14,167	14,068	15,444	8.91
	고등어	16,434	16,295	17,257	5.57
청과	배추	3,773	5,622	7,707	27.05
	무	4,703	6,310	8,246	23.48
	파	1,027	1,468	1,258	-16.69
	양파	1,286	683	909	24.86
	마늘	7,469	8,100	7,989	-1.39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쇠고기(한우지육 1kg), 돼지고기(돈육거세 1kg), 멸치(건중멸치 보통), 고등어 (10kg 상자보통), 배추(10kg그물망 보통), 무(18kg 포태 보통), 파(대파1kg 보통), 양파 (1kg 보통), 마늘(1kg 보통)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3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1%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3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1%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3월 15세 이상인구는 8,36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5,11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천명(0.8%)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남자는 72.6% 여자는 50.2%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명(0.7%)이 증가

■ 3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60.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전국 3월 15세 이상인구는 40,45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8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3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0천명(1.3%)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4,320천명으로 137명(1.0%)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062천명으로 183천명(1.9%)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경제활동 인구	서울	-1.5 (1.6)	-1.2 (0.3)	0.1 (1.2)	0.7 (-0.2)	0.7 (0.1)	2.2 (0.2)	0.8 (0.2)
	남자	-0.8 (1.3)	-1.2 (0.2)	0.1 (1.5)	1.0 (-0.2)	0.7 (0.0)	1.5 (-0.1)	0.6 (0.3)
	여자	-2.4 (2.2)	-1.2 (0.5)	0.0 (0.8)	0.4 (-0.1)	0.8 (0.2)	3.2 (0.6)	1.2 (0.1)
	전국	-0.2 (1.7)	0.3 (0.1)	0.2 (-0.1)	0.1 (-2.3)	1.6 (0.1)	1.6 (-0.2)	1.3 (1.4)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	61.1	60.4	61.1	60.9	60.9	61.0	61.1
	남자	72.7	71.7	72.8	72.6	72.5	72.4	72.6
	여자	50.1	49.6	50.0	49.9	49.9	50.2	50.2
	전국	60.2	61.3	61.1	59.7	59.6	59.5	60.3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3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0.5% 증가

■ 3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0.5% 증가한 4,846천명

- 서울의 취업자는 4,8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명(0.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80천명, 여자는 2,0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5천명(0.9%) 이, 여자는 1천명(0.1%)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전가운수통산금융업 49천명(6.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3천명(1.9%), 도소매음식숙박업 13천명(1.0%)이 각각 증가한 반면, 건설업 29천명(-7.5%), 제조업이 41천명(-7.2%)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9%) 3.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4%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전국의 3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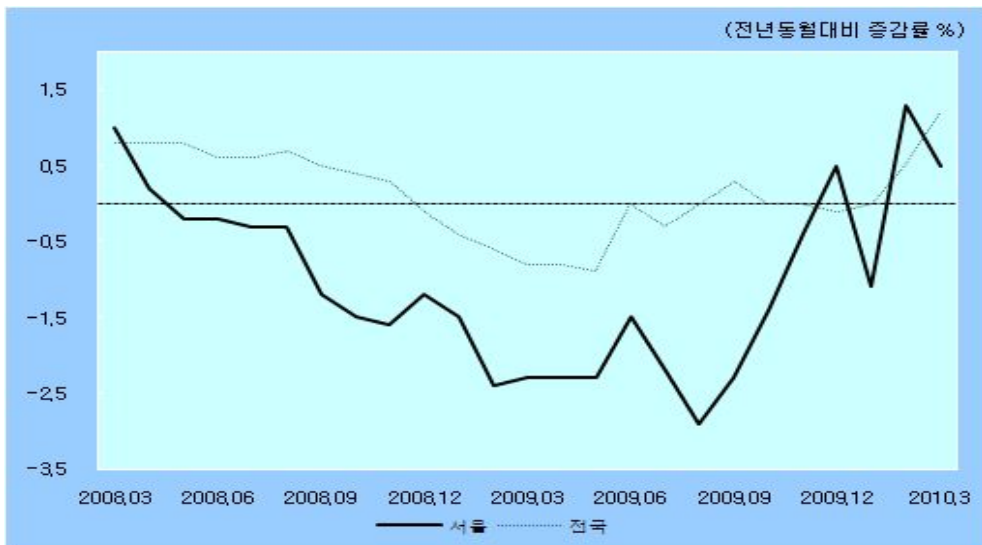
- 전국의 3월 취업자는 23,37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7천명(1.2%)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6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5천명(1.1%) 증가하였고, 여자는 9,691천명으로 123천명(1.3%)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30대는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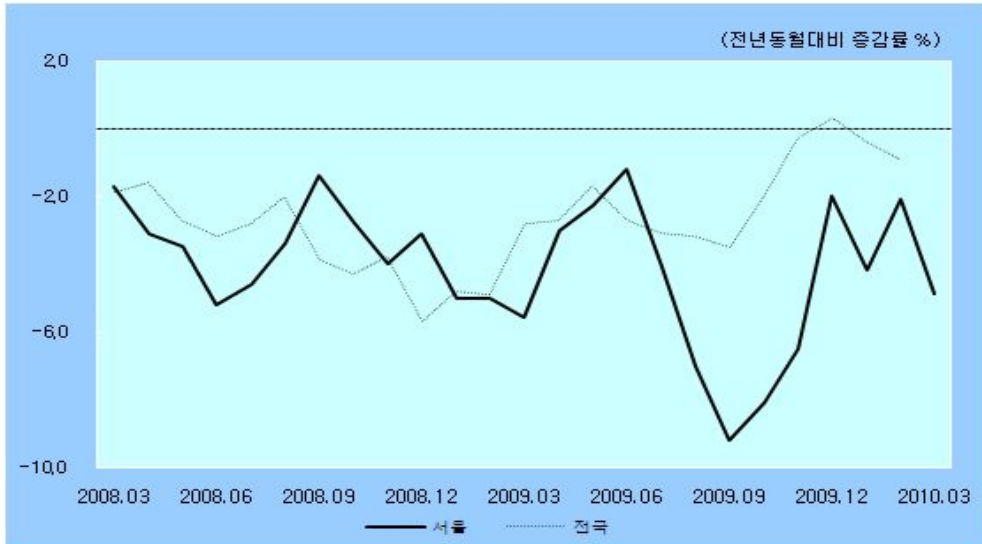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취업자	서울	-2.3 (1.6)	-1.4 (0.8)	-0.4 (0.8)	0.5 (0.0)	-1.1 (-1.9)	1.3 (0.4)	0.5 (0.9)
	남자	-2.6 (1.1)	-1.3 (1.0)	0.0 (1.1)	1.4 (0.1)	-0.9 (-2.4)	0.9 (0.1)	0.9 (1.1)
	여자	-1.9 (2.3)	-1.5 (0.4)	-0.9 (0.4)	-0.7 (-0.2)	-1.4 (-1.3)	1.7 (0.8)	0.1 (0.6)
	전국	-0.8 (1.6)	0.0 (0.2)	0.0 (-0.2)	-0.1 (-2.4)	0.0 (-1.6)	0.5 (0.0)	1.2 (2.2)
청년층 취업자	서울	-5.6 (-0.2)	-8.1 (-0.9)	-6.5 (1.6)	-2.0 (2.5)	-4.2 (-0.7)	-2.1 (-1.1)	-4.9 (-3.0)
	전국	-4.9 (-1.3)	-3.5 (-0.9)	-2.0 (1.7)	-0.3 (0.6)	0.3 (1.1)	-0.4 (-2.3)	-0.9 (-1.8)
고령층 취업자	서울	-2.2 (5.5)	9.4 (3.2)	13.1 (0.8)	13.5 (-2.2)	3.8 (-10.1)	6.7 (0.6)	9.4 (8.1)
	전국	1.2 (10.3)	4.4 (0.5)	1.3 (-4.2)	-1.9 (-14.0)	-4.5 (-8.0)	-1.7 (3.0)	0.5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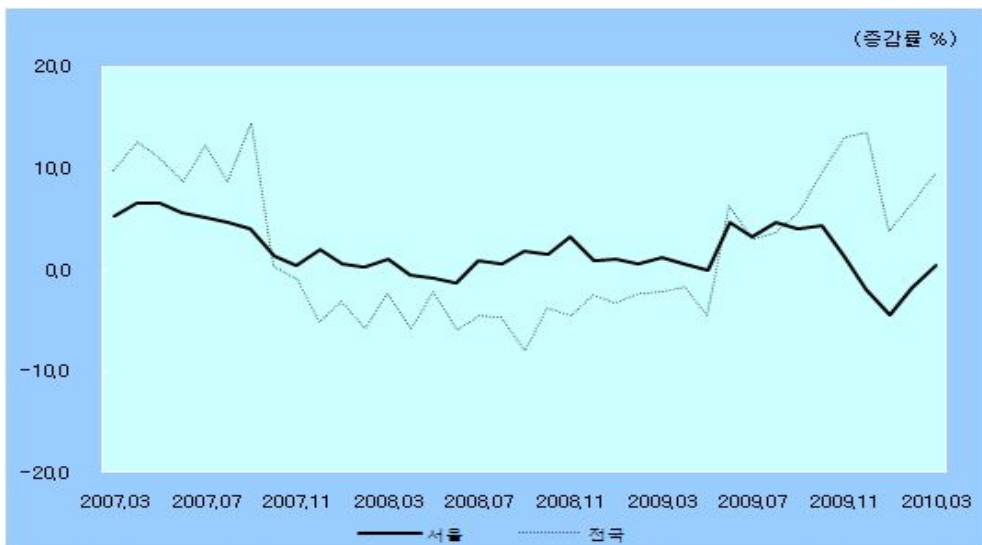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사무종사자 등은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26.1%),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37천명(2.9%), 전문·기술·행정관리자 9천명(0.6%)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 19천명(-1.5%), 사무종사자 2천명(-0.2%)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비임금근로자는 1,227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31천명(2.6%)이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5천명(-0.1%)이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천명(2.9%), 무급가족종사자는 2천명(1.0%)이 각각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0천명(5.6%), 임시근로자는 7천명(0.6%)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22천명(-23.4%)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36시간 미만 취업자 6.8%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 0.5% 감소**
 -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5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천명(6.8%)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3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0.5%)이 감소하였음
 -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3천명(12.9%)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13천명(3.7%)이 증가하였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7천명(2.7%) 증가하였고,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99천명(-6.9%) 감소하였음
 - 일시휴직자는 5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34.2%) 증가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시간 감소하였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산업별	제조업	-12.0 (11.6)	-17.5 (0.9)	-6.6 (1.2)	-4.9 (1.1)	-7.5 (0.1)	0.3 (2.1)	-7.2 (3.2)
	SOC 및 기타서비스업	-0.8 (0.4)	0.9 (0.8)	0.4 (0.8)	1.2 (-0.2)	-0.3 (-2.1)	1.4 (0.2)	1.6 (0.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8 (0.5)	3.6 (1.1)	2.1 (0.1)	1.2 (-1.5)	-1.0 (-4.0)	0.0 (1.7)	1.9 (1.4)
	도소매·음식숙박	-3.4 (0.4)	1.1 (0.1)	3.0 (1.5)	2.4 (0.9)	3.0 (-0.5)	3.2 (-1.2)	1.0 (-1.8)
	전기·운수·통신·금융	-2.1 (-0.8)	3.5 (1.1)	1.2 (0.5)	5.2 (2.0)	2.8 (1.0)	6.6 (0.3)	6.7 (-0.8)
	건설업	-9.4 (6.9)	-16.2 (1.3)	-15.8 (2.4)	-10.6 (-2.0)	-14.6 (-5.9)	-9.3 (-2.4)	-7.5 (9.0)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2 (-1.5)	3.7 (-0.2)	2.4 (0.2)	2.0 (-0.5)	1.2 (-1.1)	-0.7 (-0.6)	0.6 (-0.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4.6 (-5.6)	0.1 (-9.0)	-2.5 (-3.3)	-1.2 (-1.9)	-0.4 (-4.9)	0.6 (3.4)	-1.5 (2.9)
	서비스·판매종사자	6.5 (0.3)	3.4 (1.8)	2.4 (-0.7)	-1.8 (0.6)	-4.7 (1.2)	3.3 (-1.8)	5.9 (-1.8)
	사무종사자	5.0 (1.6)	1.1 (-2.9)	3.3 (1.7)	4.5 (2.5)	-0.1 (-3.6)	2.4 (1.3)	-0.2 (-1.1)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1 (1.9)	-0.8 (0.9)	0.3 (1.0)	0.8 (-0.2)	-2.3 (-3.0)	0.7 (0.7)	-0.1 (1.0)
	비임금근로자	-8.5 (0.8)	-3.1 (0.3)	-2.4 (0.2)	-0.4 (0.5)	2.6 (1.4)	2.9 (-0.4)	2.6 (0.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3월 서울의 실업률 5.2%, 고용률은 57.9%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5.2% 상승, 전국(4.1%)대비 1.1%p 높은 수준
 - 3월 실업자는 2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명(6.4%)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4.4%) 감소, 여자는 97천명으로 24천명(32.9%)이 증가
 - 실업률은 5.2%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8%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여자는 4.5%로 1.1%p 상승

- 전국의 실업률 4.1% 상승
 - 전국의 3월 실업자는 1,0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천명(5.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가 6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1.2%) 감소하였고, 여자는 37천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19.4%) 증가
 -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여자는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30대~40대에서 감소, 실업률도 30대~40대에서 감소 나머지 연령계층에서는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7.9%로 전국의 고용률(57.8%)보다 0.1%p 높은 수준
 - 서울의 3월 고용률은 57.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여자는 48.0%로 0.4%p 하락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7.8%)에 비해 0.1%p 높은 수준임
 - 전국의 3월 고용률은 57.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46.9%로 보합,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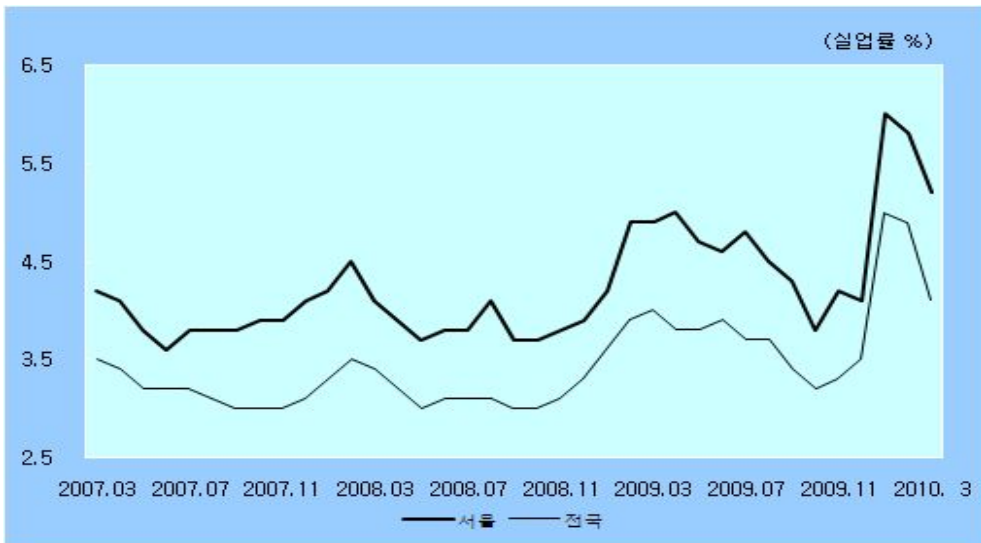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실업률	서울	4.9	3.8	4.2	4.1	6.0	5.8	5.2
	남자	6.1	4.3	4.7	4.4	6.7	6.5	5.8
	여자	3.4	3.2	3.6	3.6	5.1	4.9	4.5
	전국	4.0	3.2	3.3	3.5	5.0	4.9	4.1

		2008년		2009년			2010년	
		1/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실업률	서울	8.4	7.0	8.9	7.8	8.4	7.8	10.0
	전국	7.3	7.0	8.6	8.0	8.1	7.6	9.5
고령층 실업률	서울	2.6	1.2	2.0	3.2	2.0	1.7	7.2
	전국	1.6	1.1	1.6	1.9	1.6	1.5	5.8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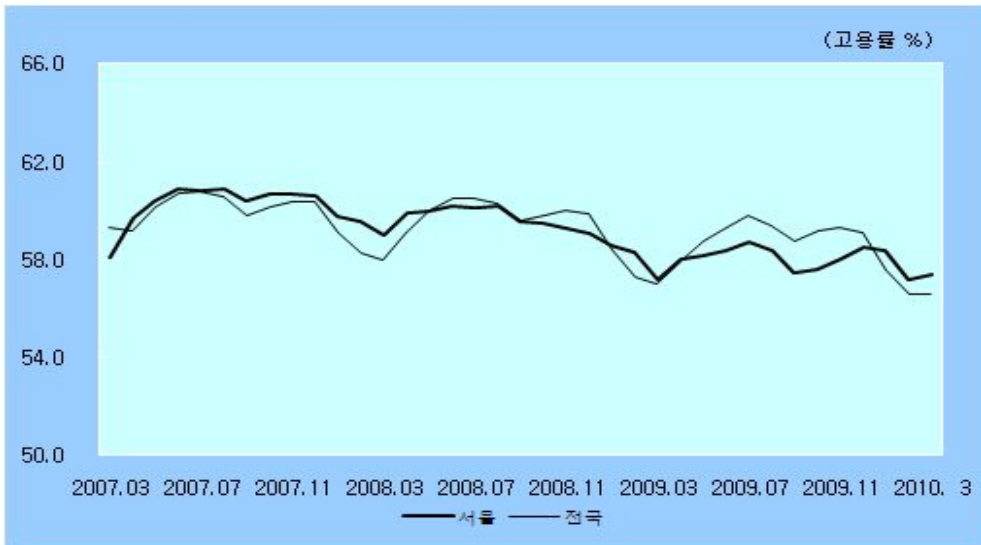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고용률	서울	58.0	58.0	58.5	58.4	57.2	57.4	57.9
	남자	68.2	68.7	69.4	69.4	67.6	67.7	68.4
	여자	48.4	48.0	48.2	48.1	47.4	47.7	48.0
	전국	57.9	59.3	59.1	57.6	56.6	56.6	57.8

		2008년		2009년			2010년
		1/4	4/4	1/4	2/4	3/4	4/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6.1	43.9	45.6	43.8	42.8	42.8
	전국	42.0	39.9	41.1	40.7	40.1	40.1
고령층 고용률	서울	30.5	28.7	30.3	31.1	32.5	29.4
	전국	33.9	33.2	38.3	38.9	36.4	31.4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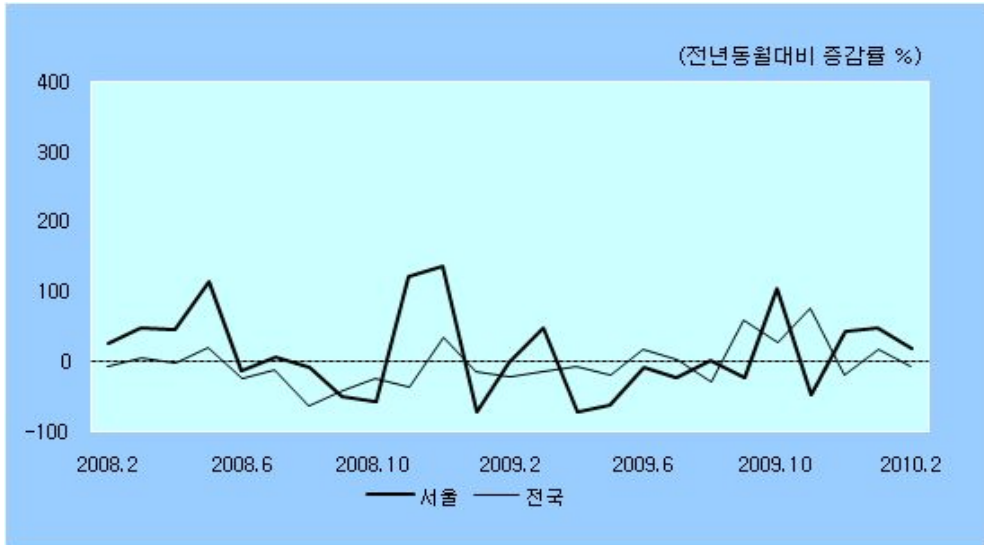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2,92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0%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4조 6,15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7%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28.0%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관공서 및 교량 지하철 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85.1% 증가, 민간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신규주택 및 재개발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12.4% 증가
- 공종별로는 전년대비 건축부문은 32.1% 증가, 토목부문은 89.5%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서울	1,086	1,925	1,585	5,357	933	1,293	19.0	38.6	
발주 자별	공공	195	229	512	1089	109	362	85.1	232.1
	민간	828	1,679	1,061	4,247	778	931	12.4	19.7
공종 별	건축	956	1,715	1,095	4,627	828	1,094	14.4	32.1
	토목	130	210	490	730	105	199	52.6	89.5
전국	4,949	10,415	14,425	17,611	6,643	4,615	-6.7	-30.5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 강남지역 상승폭 전월대비 축소

■ 3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다소 축소

- 3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봄 이사철을 맞아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전월대비 0.2% 상승하며 상승폭은 다소 축소된 모습.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장기평균(0.5%)을 하회하는 수준이 유지된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관망세가 심화되는 모습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0.3%), 연립주택(0.2%), 단독주택(0.1%) 순으로 상승하였으나, 아파트는 상승폭이 전월대비 소폭 축소되었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임

■ 서울 강남지역 상승폭 전월대비 소폭 축소

- 서울 강남지역(0.1%)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강북지역(0.1%)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보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2월	3월		
서울	99.0		103.0	103.1	4.1	0.1
아파트	98.7		102.9	102.9	4.3	0.0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8.9	102.2	102.3	3.4	0.1
지역별 주택매매	강남	99.1	103.9	103.9	4.9	0.1
전국	99.0		101.9	102.1	3.2	0.2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

- 강북지역(0.1%)에서는 마포구(0.6%), 중구(0.4%), 강북구(0.3%), 종로구(0.2%) 순으로 상승함
- 마포구(0.6%)는 전세물량부족으로 인한 소형주택 매매전환 수요 증가와 망원동 일대 유도정비구역의 단독 및 연립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상승함
- 중구(0.4%)는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로 상승하였고, 강북구(0.3%)는 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가 유입되면서 상승함

■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축소

- 강남지역(0.1%)에서는 동작구(0.3%)와 금천구(0.2%), 송파구(0.2%), 서초구(0.1%)가 상승을 주도함
- 동작구(0.3%)는 계절적인 성수기와 신혼부부 수요 증가로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하여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함
- 금천구(0.2%)는 금천구심 개발호재, 강남순환도로 2013년 개통 예정, 신안산선 시흥동 일대 노선확정 등 여러 개발호재로 상승함
- 송파구(0.2%)는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호재로 인해 직장인 및 신혼부부수요 증가로 상승하였고, 서초구(0.1%)는 “반포·잠원지구 수변도시 개발” 호재로 신반포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함

■ 3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3월 26일 기준)은 1,848.05만원으로 전월(1,847.68만원) 대비 소폭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402만원), 서초구(2,864만원), 용산구(2,592만원), 송파구(2,491만원), 양천구(2,015만원), 강동구(1,935만원), 광진구(1,893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32만원), 강북구(1,139만원), 중랑구(1,141만원), 도봉구(1,158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높은 상승률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맞아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며 전월대비 0.7% 상승하면서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모습
- 수도권(0.7%)은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기타지방(0.6%)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광역시(0.6%)는 상승폭이 축소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0.8%)와 연립주택(0.7%)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아파트는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연립주택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됨.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3% 상승함

■ 봄 이사철 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가 맞물리면서 매매가격대비 높은 상승률 지속

- 강북지역(0.9%)에서는 성동구(2.6%), 성북구(1.3%), 광진구(1.1%), 용산구(1.1%)를 중심으로 상승함
- 성동구(2.6%)는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 선호와 봄철 이사수요, 신혼부부 수요 증가 및 재개발 이주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함
- 성북구(1.3%)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인한 봄철 이사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 증가와 대학교 임직원 및 학생 수요로 인해 상승함
- 광진구(1.1%)는 강남권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유입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학군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2호선, 7호선 건대입구 환승역 주변 교통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함
- 강남지역(0.7%)에서는 강서구(1.8%), 강동구(1.2%), 동작구(1.1%), 송파구(0.8%)가 상승을 주도함
- 강서구(1.8%)는 지하철 9호선 개통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세물량 품귀현상으로 인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함
- 강동구(1.2%)는 기존세입자의 전세재계약 증가로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지의 경우 미리 인근 단지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며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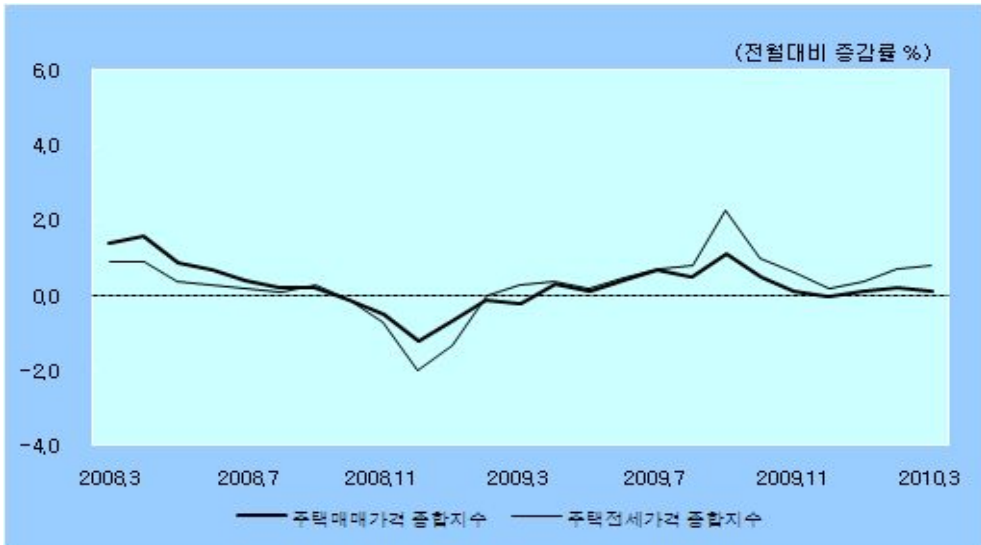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2월	3월	2월		
서울	99.1	107.1	107.9		9.0	0.8
아파트	99.2	109.8	110.5		11.5	0.7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8.7	104.7	105.6		7.0	0.9
강남	99.4	109.5	110.3		10.9	0.7
전국	98.9	104.3	105.0		6.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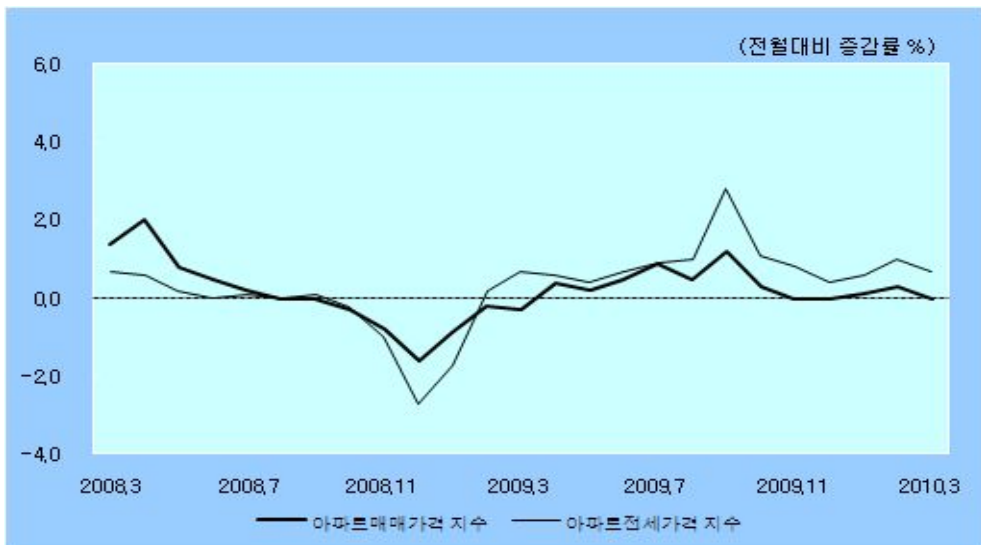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3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1.3%로 전월(41.0%)보다 0.3%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10월 40.0% → 11월 40.4% → 12월 40.6% → 2010년 1월 40.7% → 2월 41.0%)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월 전국 평균 54.5%보다 13.2%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3%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3.9%, 강남 39.1%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8%p이며 지난 달(4.7%p)보다 소폭 상승.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회사채 금리 국고채금리보다 더 큰 폭 하락

금리

■ 국고채 금리 하락 폭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약화, 수요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등에 기인
- 3월 하순 이후에는 단기급락에 따른 부담 등으로 소폭 반등

■ 회사채 금리 큰 폭 하락

- 회사채(3년) 금리는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신용위험 우려 완화, 보험사,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들의 고금리 신용채권 매수 확대 등에 기인하여 국고채 금리보다 더 큰 폭 하락
- CD(91일) 금리는 3월에는 여타 단기시장금리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4월 들어 하락 폭 확대

주가

■ KOSPI 지수 상승세 지속

- 코스피지수는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 완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및 저금리기조 유지 전망, 국내기업의 1/4분기 실적개선 기대 등에 기인하여 2월 중순 이후의 상승세를 지속 (09년 12월말 1,683p → 2010년 1월말 1,602p → 2월말 1,595p → 3월말 1,693p)

■ 3월중 외국인 매수 대폭 확대

- 외국인은 3월중 국내주식을 매수를 대폭 확대하면서 주가상승을 주도
외국인 순매수(조원): 9월 5.1 조원 → 10월 1.6조원 → 11월 2.0조원 → 12월 2.3조원
→ 2010년 1월 0.7조원 → 2월 -0.0조원 → 3월 5.4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금리	국고채(3년)	3.69	4.32	4.24	4.29	4.19	3.94	-0.25
	CD(91일물)	2.45	2.79	2.82	2.88	2.88	2.83	-0.05
	콜금리(1일)	1.77	2.00	2.00	2.00	2.00	2.01	0.01
	장·단기 금리차 ¹⁾	1.24	1.53	1.42	1.41	1.31	1.11	-0.20
주가	KOSPI	1,140.45	1583.47	1646.64	1682.16	1598.96	1665.50	66.54
	KOSDAQ	390.98	477.15	498.35	535.44	505.32	518.70	13.38
환율 (₩/US\$)	1,453.35	1,163.18	1,166.13	1,138.77	1,156.83	1,136.11	-20.72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3월중 은행 가계대출 큰 폭 증가로 전환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대출금리 하락, 입주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증가규모가 확대
-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은행의 우량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노력, 설 연휴 시 카드이용 대금 결제 등으로 증가로 전환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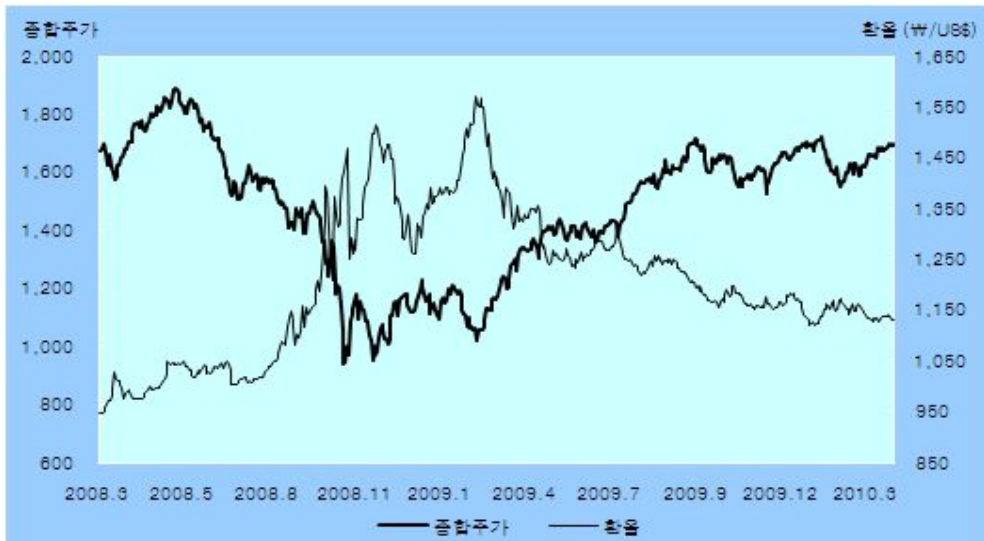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10년		
							2월	3월	
가계대출 ¹⁾	20.1	2.6	0.5	-1.0	-0.2	1.9	407.3	409.3	0.49
주택담보대출 ²⁾	25.4	1.6	2.0	0.6	0.7	2.5	265.5	267.2	0.64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1.0	-1.5	-1.6	-0.9	-0.6	140.7	141.0	0.21

주: 1)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2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8조 7,37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172억원 (0.40%) 증가
- 2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65조 7,642억원으로 전월대비 3,638억원 (0.29%)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1월	12월	1월	2월		
서울	예금은행	411,650.60	419,997.6	413,183.5	414,043.1	415,482.2	1,439.1	0.35
	비은행기관	85,382.60	91,067.5	93,086.7	92,677.0	93,255.1	578.1	0.62
	합계	497,033.20	511,065.1	506,270.2	506,720.1	508,737.3	2,017.2	0.40
전국	예금은행	926,602.20	963,885.1	953,505.2	955,782.2	958,052.8	2,270.6	0.24
	비은행기관	282,712.90	302,212.0	307,845.1	306,344.0	307,711.4	1,367.4	0.45
	합계	1,209,315.10	1,266,097.1	1,261,350.3	1,262,126.2	1,265,764.2	3,638.0	0.29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2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33개로 전월대비 9.9%(179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는 15.9%(224개) 증가
- 2월 전국의 신설법인은 4,668개로 전월비로는 12.5%(667개)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 10.4%(441개) 증가하여 2009년 6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13.9%(152개) 증가, 제조업 25.9%(51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14.8%(17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409	1,764	1,971	1,812	1,633	-179	-9.9	224	15.9
서비스업	1,095	1,353	1,511	1,360	1,247	-113	-8.3	152	13.9
제조업	197	275	315	286	248	-38	-13.3	51	25.9
건설 및 설비업	115	129	132	150	132	-18	-12.0	17	14.8
전국	4,227	4,690	5,424	5,335	4,668	-667	-12.5	441	10.4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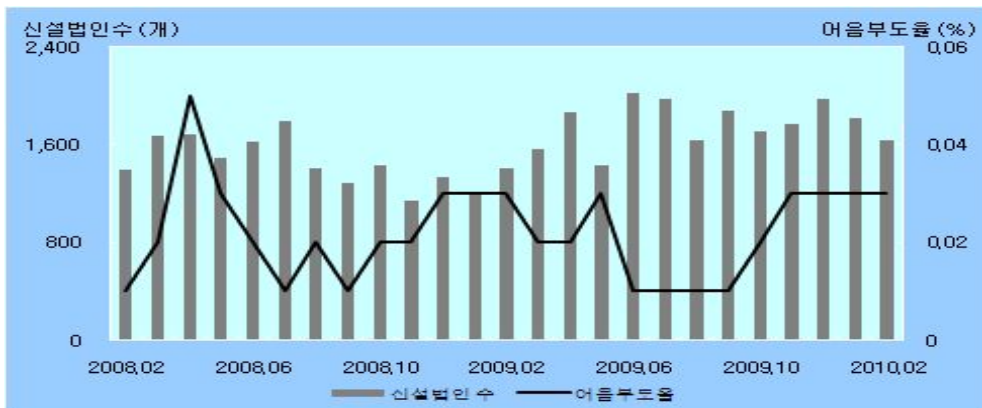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신설/부도법인 배율 상승
 - 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전국의 어음부도율도 0.03%로서 전월과 같은 수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8개로 전월대비 25.5%(13개) 하락, 전국의 부도업체수는 111개로 전월대비 21.3%(30개) 하락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6.3배로 전월(51.8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3.9배로 전월(51.8배)보다 크게 상승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3	0.03	0.03	0.00	0.0	
	부도업체 수	73	43	62	51	-13	-25.5	
	신설/부도법인배율	27.6	50.4	39.4	51.8	56.3	4.5	-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4	0.03	0.03	0	0.0	
	부도업체 수	230	135	152	141	111	-30	-21.3
	신설/부도법인배율	30.0	52.1	49.3	51.8	63.9	12.1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신용보증 공급건수 및 공급금액 지속적 증가

■ 보증 건수 및 금액 전월대비 지속적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3월중 6,580건, 131,380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65.0%, 금액은 86.6%의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건수 기준 -25.8%, 금액 기준 -26.5%로 감소하였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8,873	4,187	3,577	1,997	3,988	6,580	2,592	65.0	-2,293	-25.8
금액	178,725	61,133	51,605	24,582	70,393	131,380	60,987	86.6	-47,345	-26.5
건당평균금액	20.1	14.6	14.4	12.3	17.6	20.0	2.4	13.6	-0.1	-0.5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요 업종 건수 비중 증가

- 3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지원 현황」 에서 전월대비 건수 기준시 제조업은 0.29%(5.64% → 5.93%), 도·소매업은 1.26%(34.38% → 35.64%), 음식·숙박업은 1.94%(16.37% → 18.31%)비중 증가하였으며, 금액기준 시 제조업은 0.77%(7.04% → 7.81%), 도·소매업은 2.42%(38.1% → 40.52%)비중 증가했으나, 음식·숙박업은 -0.07%(18.7% → 18.63%)비중 감소하였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390	2,345	1,205	984	1,656	6,580
비율	5.93	35.64	18.31	14.95	25.17	100
금액	10,264	53,230	24,470	19,634	23,783	131,380
비율	7.81	40.52	18.63	14.94	18.10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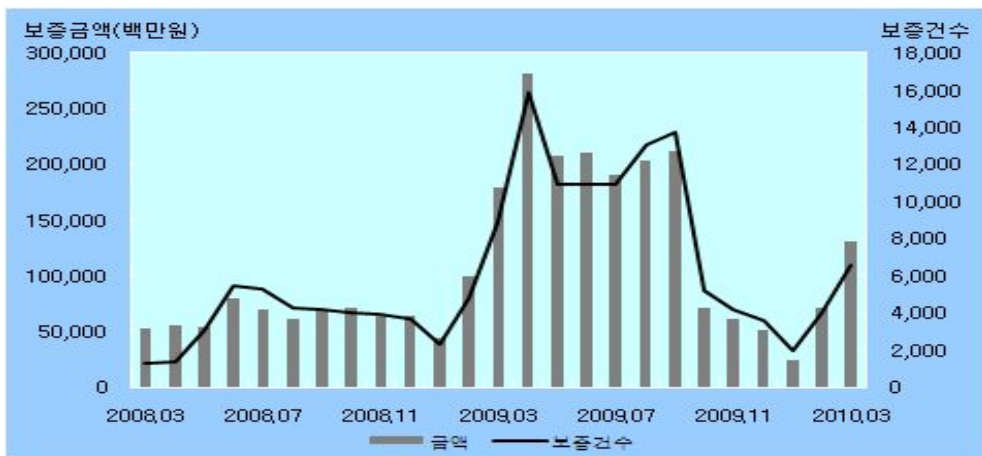
- 3월 기준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현황」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비율은 건수기준 시 99.3%, 금액기준 시 98.2%로 이는 전월대비 건수기준 시 0.1%(99.4% → 99.3%), 금액기준 시 0.2%(98.4% → 98.2%) 감소된 수치이며,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비율은 건수기준 시 0.1%(0.6% → 0.7%), 금액기준 시 0.2%(1.6% → 1.8%) 소폭 증가하였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10.1	2010.2	2010.3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967	3,894	6,401	2,507
	비율	97.6	97.6	97.3	-0.3
	금액	22,419	66,482	121,698	55,216
	비율	94.4	94.4	92.6	-1.8
소기업	건수	21	70	134	64
	비율	1.8	1.8	2.0	0.2
	금액	1,402	2,779	7,282	4,503
	비율	3.9	3.9	5.6	1.7
중기업	건수	9	24	45	21
	비율	0.6	0.6	0.7	0.1
	금액	762	1,134	2,341	1,207
	비율	1.6	1.6	1.8	0.2
합계	건수	1,997	3,988	6,580	2,592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4,583	70,396	131,381	60,985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3월 서울의 수출은 36.4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4.0% 증가하였고, 수입은 87.6억달러로 57.7% 증가
- 3월 전국의 수출은 374.5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4.3% 증가하였고, 수입은 356.3억달러로 49.0% 증가. 무역수지는 18.2억 달러 흑자를 달성함
- 전국의 수출은 주력품목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증가로 큰 폭 상승

■ 3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353,026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690,419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로 전년동월대비 424.5% 증가, 수입의 경우 항공기 및 부품으로 전년동월대비 404.4% 증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2,530	3,338	3,561	3,111	3,031	3,644	1,114	44.0
	수입	5,554	6,802	7,273	7,237	7,277	8,756	3,202	57.7
전국	수출	27,891	34,075	36,010	31,007	33,138	37,450	9,559	34.3
	수입	23,921	29,457	32,920	31,468	31,062	35,632	11,711	49.0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3월		2010년 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530,184	-7.9	3,643,731	44.0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7,311	99.5	353,026	424.5
2	반도체	114,151	12.6	252,301	121.0
3	자동차부품	113,380	34.6	237,034	109.1
4	컴퓨터	131,706	29.4	215,790	63.8
5	편직물	164,621	-5.3	197,740	20.1
6	합성수지	90,614	23.1	186,321	105.6
7	고무제품	95,537	0.5	144,954	51.7
8	무선통신기기	145,480	-0.3	125,618	-13.7
9	합성고무	30,158	24.1	120,634	300.0
10	의류	74,481	-12.9	83,660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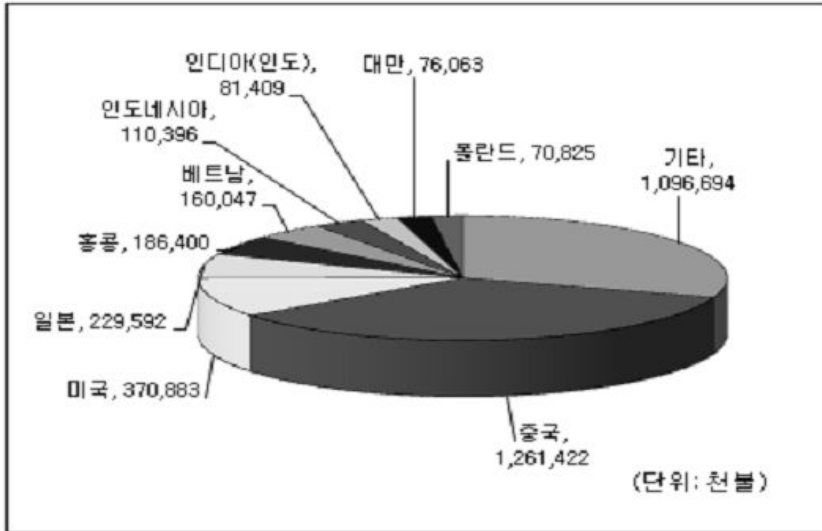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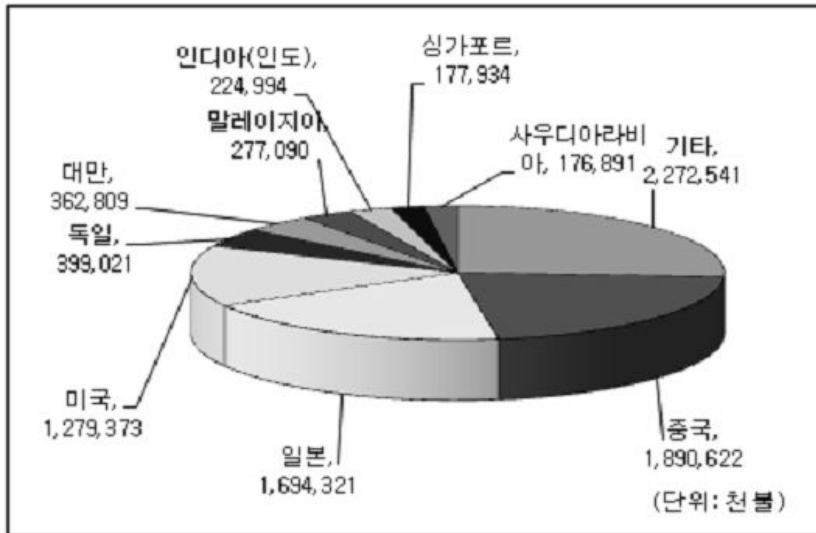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3월		2010년 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5,554,347	-25.5	8,755,596	57.6
1	반도체	600,618	40.4	690,419	15
2	석유제품	270,296	509.5	593,177	119.5
3	컴퓨터	385,931	-6.9	533,289	38.2
4	항공기 및 부품	52,228	-44.2	263,452	404.4
5	농약 및 의약품	141,270	27.1	240,797	70.5
6	의류	216,208	17.4	228,081	5.5
7	자동차	149,347	27.1	227,289	52.2
8	플라스틱제품	151,696	114.8	221,148	45.8
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41,931	-67	204,438	387.6
10	무선통신기기	135,387	15.1	196,579	45.2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

* 서울시 외국인 투자 동향은 다음과 같음

■ '09년도 서울의 외국인투자는 '04년 이래 최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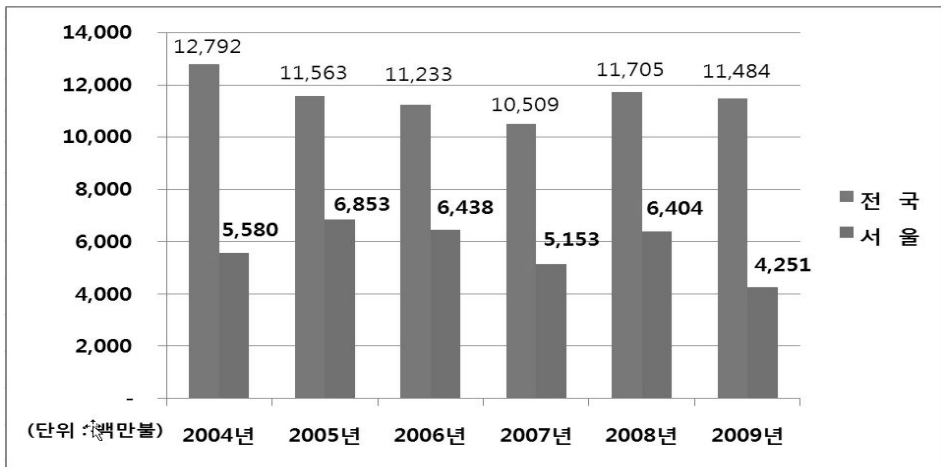
- 서울의 FDI는 전년(64억불) 대비 33.6% 감소한 42.5억불, '09년도 서울의 외국인투자는 '04년 이래 최저수준임
- '09년 국가 전체 외국인투자(FDI)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114.8억불 기록, '05년 수준으로 떨어짐

<표>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불, 신고기준)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전국	864	2,715	1,024	1,830	979	2,879	877	4,281	3,744	11,705
	서울	379	1,514	451	991	429	999	436	2,900	1,695	6,404
2009년	전국	788	1,677	814	2,967	792	3,374	737	3,465	3,131	11,484
	서울	281	362	266	1,590	267	1,765	257	534	1,071	4,251
전국 대비 비율(%)		36%	22%	33%	54%	34%	53%	35%	16%	35%	37%

자료: KOTRA IK



<그림> 외국인 직접투자 연도별 동향

자료: KOTRA IK

■ 서울시 외국인 투자는 서비스업에 집중

- 서울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체 투자금액의 91.7%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33.5% 감소한 3,902백만불 기록. 이는 주로 금융보험업에서의 투자 감소에 기인함
- 제조업의 경우 343백만불로 전년도 377백만불 대비 9% 감소
- 서비스업중 도소매(유통)의 경우 전년 386백만불 대비 1,731백만불로 77.7% 증가하였으나 금융보험 서비스업은 1,079백만불로 전년 4,331백만불 대비 75% 감소하였고, 부동산임대업도 319백만불로 전년 430백만불 대비 25.8% 감소

〈표〉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건)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계
제조업	금액	49	231	35	62	377	25	22	46	250	343
	건수	30	39	30	32	131	29	21	29	19	98
서비스업	금액	1,443	737	856	2,838	5,874	331	1,559	1,727	285	3,902
	건수	342	402	391	403	1,538	246	235	238	235	954
기 타	금액	22	23	108	-	153	0	6	-	0	6
	건수	7	10	8	1	26	6	10	-	3	19
합 계	금액	1,514	991	999	2,900	6,404	356	1,587	1,773	535	4,251
	건수	397	451	429	436	1,695	281	266	267	257	1,071

주: 기타 산업은 1차 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자료: KOTRA IK